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의 변화

서지영¹, 최은희^{2*}

¹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²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Differences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Satisfaction for Nursing Practice

Ji Yeong Seo¹, Eun Hee Choi^{2*}

¹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²College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수술환자 간호에 대한 교육을 적용하여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추후 수술환자 간호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법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으로 대상자는 Y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 155명이었으며, 대상자들은 3학년 첫 수업시간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실험참여에 대한 동의서와 사전 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후, 1학기 및 2학기 마지막 수업에서도 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3.0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 -test, t-test, 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만족도가 높은 간호학생들과 중간이하로 낮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을 제외하고는 두 군 간에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만족도가 중간이하인 간호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4.57$, $p=.012$).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0.20$, $p=.821$). 이에 반해, 임상수행능력은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와($F=1.08$, $p=.343$) 시간에 따라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58$, $p=.210$). 즉, 간호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간호사로서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여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학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tepwise education for operation patient care according to nursing satisfaction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The participants were 192 junior students who signed a consent form with an explanation of the study. Data were obtained from the students on the first day of junior's first semester and the last day of junior's first and second semester.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number,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t-test, and repeated measure ANOVA through the SPSS/WIN 23.0 program. Results showed that nursing students with high nursing satisfaction had high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an those with lower nursing satisfaction ($F=4.57$, $p=.01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ime ($F=0.20$, $p=.821$). The clinical performanc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nursing satisfaction ($F=1.08$, $p=.343$) and time ($F=1.58$, $p=.210$). This means that increasing nursing satisfaction would be a strategy for increasing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hat was the cor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 Nursing satisfaction, Critical thinking, Clinical practice

*Corresponding Author : Eun Hee Choi(Yeungnam University College)

email: eh5472@ync.ac.kr

Received June 5, 2020

Accepted September 4, 2020

Revised July 16, 2020

Published September 30, 2020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간호학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 고민이나 결정과 상관없이 고등학교 성적에 맞추거나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함을 고려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1,2]. 간호학과 입학 시 성적이나 취업을 우선하여 입학한 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낮고[3], 장기적으로는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다[4].

전공만족도는 대학생이 느끼는 전공에 대한 개인적 판단으로 자신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개인이 속한 전공을 평가하는 과정의 산물로써[5,6], 전공만족도에 따라 간호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에 대한 태도가 다르며, 간호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7].

간호대학생의 전공이나 학과만족도의 저하는 실습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할 뿐 만 아니라 취업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전문직관 형성을 방해하여 전문직 역할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특히, 타학과와 교육과정을 비교했을 때, 간호대학생의 주요한 실습환경인 임상현장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육체적 요구가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접하게 된다. 더욱이 임상현장은 엄격한 윤리관과 책임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적응이 어려울 수 있는[9] 환경이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학습몰입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적극적으로 진로준비 행동을 한다[10]. 이에 반해, 전공만족도가 낮은 간호대학생은 학교생활 적응력이 낮아져 중도에 포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11], 장기적으로는 비판적 사고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4].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키고,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을 막기 위해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비판적 사고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려면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용하려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다룬 연구가 많다 [4,12-15]. 특히,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비판적 사고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 점[16]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실무에서 내린 판단과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17]에 비추어 볼 때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대학생의 중요한 핵심역량 중 하

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13,15] 임상 실습스트레스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18].

임상수행능력은 지식, 기술, 판단을 통해 간호실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능력이다 [19].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실습을 통해 촉진되며[20], 신규간호사의 적응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21]. 즉, 신규간호사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실습을 통하여 임상수행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간호과학회에서 제시한 성인간호학 교과목의 학습목표에 포함된 수술환자 문제[22]에 대한 학습방법으로 이론수업, 핵심기본간호술 평가 및 복부수술 대상자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비판적 사고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4,23],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21,24]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간호학 전공 만족도와 변수 간의 관계나 간호학 만족도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또는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간호학 만족 정도에 따라 핵심역량인 비판적 사고와 임상수행능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정규교육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 정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와 임상수행능력의 변화를 확인하여, 추후 수술환자 간호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방법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 전공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학 만족도가 높은 군과 낮은 군 간의 동질성을 파악한다.
- 2) 수술환자 간호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에서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의 변화 정도를 파악한다.

1.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Y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YNC IRB/201904-03)을 받아 진행되었다. 연구보조원

이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간호대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생의 이동이 용이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설문지 미제출자나 미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수업에 참여한 후 수거함에 설문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학과 정규과정에서 일반적 특성 중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수술 환자 임상 수행능력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Y대학교 4년제 간호학과 재학 중 이면서 교과과정 상 수술환자 간호를 학습하게 되는 3학년 간호대학생으로 하였다.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두 그룹의 차이를 확인할 때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8, 중간 효과 크기인 (ES)=.5로 했을 때 128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수는 회수를 70%(3차에 걸친 자료수집기간 고려)와 탈락율 5%로 하여 1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2회기에 16부, 3회기에 22부가 회수되지 않아,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55부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는 정규 수업 시작 전에 측정한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이다가 4명, 그저 그렇다가 100명, 매우 만족한다가 87명으로 나타나 그저 그렇다 이하인 그룹(낮은 군)과 매우 만족한다(높은 군)의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수술환자 간호에 대한 교육과정

수술환자 간호에 대한 교육과정은 1년 과정으로, 3학년 1학기는 수술환자 간호에 대한 이론과 핵심기본간호술로 구성되었다. 이론수업은 수업 7째주에 3시간 시행되었으며, 핵심기본간호술평가는 임상 실습 주 다음 주에 15-16명씩 매주 평가하여 한 학생이 한 학기 동안 1회

의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는 핵심기본간호술 중 수술 전 환자간호와 수술 후 환자간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15] 평가자가 1:1로 평가하여 80점 이하인 경우에는 자가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후 재평가하여 80점 이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학년 2학기에는 수술환자 간호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시뮬레이션 적용은 2학기 이론과 실습이 끝난 후 한 조에 3-4명으로 구성된 간호대학생을 24팀으로 나누어서 팀 당 1회기씩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실습에 적용된 수술환자 간호에 대한 시나리오 내용은 복부수술 전·후 환자와 관련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술 전 환자: 환자 상황은 외래에서 내시경 상 위암으로 진단받고 전신마취 하에 복부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치료된 결핵, 30년 전부터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다. 고지혈증으로 20년 동안 투약하고 있으며 10년 전 뇌졸중을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다.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며, 부친은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현재 수술 전날 저녁이며 수술 전 시행한 검사결과는 모두 정상이다. 수술 전 간호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내용은 태도 영역에서는 자기 소개, 손씻기와 환자확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식과 기술 영역에서는 수술 전 확인 및 교육, 수술 후 교육, 신체적 준비와 처방 수행능력으로 구성하였다.

2) 수술 후 환자: 수술 전 환자와 같은 과거력을 가진 환자가 복부수술(위암제거) 후 병동에 도착한 상황이다. 수술 후 환자 간호 체크리스트는 태도 영역은 수술 전 환자와 동일하며, 지식과 기술 영역은 환자가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막 올라왔을 당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기도 유지, 출혈 확인, 심호흡, 기침 격려, 활력징후 측정 등으로 구성하였다.

2.3.2 간호학 만족도

간호학에 대한 개인적 판단, 전공교과 및 취업 등과 관련한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를 의미한다[25]. 본 연구에서는 '매우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불만족이다'의 3점으로 구성하였다.

2.3.3 비판적 사고성향

Kwon 등[25]이 개발한 것으로 간호대학생이 자기측정 평가도구이다. 총 35문항의 도구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3차 조사에서 차례대로 .89, .91, .92이었다.

2.3.4 임상수행능력

Son 등[26]이 일반간호사의 기본적인 간호실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개발한 자가측정 평가도구이다. 총 64 문항의 도구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3차 조사에서 차례대로 .95, .98, .96이었다.

2.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3학년 1학기 첫 이론 수업 시작부터 3학년 2학기 시뮬레이션 실습 직후까지이며 기간은 2019년 3월 2일부터 12월 23일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차 자료 수집은 1학기 이:론수업이 시작하는 2019년 3월 2일에서 3월 1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2차 수집은 1학기 이론수업 마지막날인 6월 3일부터 14일까지이었다. 마지막 3차 자료수집은 2학기 시뮬레이션 실습 후에 하였으며 2019년 12월 13일부터 23일까지이었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은 군과 중간 이하인 군 간의 동질성은 실수, 평균, 표준편차, χ^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변화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종교와 지난 학기 성적에 따라서는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과 중간 이하의 낮은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35, p=.001$).

Table 1. Homogeneity of general characteristics (n=155)

Characteristics		Satisfaction for nursing		χ^2 or t (p)
		Higher group	Lower than moderate	
		N(%) or M±SD		
Gender	Male	14(9.1)	12(7.8)	0.63 (.427)
	Female	58(37.7)	70(45.5)	
Age		24.0±4.2	22.6±1.2	2.88 (.005)
Religion	Yes	20(12.9)	20(12.9)	0.27 (.601)
	No	52(33.5)	63(40.6)	
Grade of last semester	4≤	11(7.2)	5(3.3)	7.90 (.095)
	3.5-3.9	25(16.4)	24(15.8)	
	3.0-3.4	27(17.8)	28(18.4)	
	2.5-2.9	7(4.6)	25(16.4)	

* Missing data was excluded

3.2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변화

대상자의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시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0.20, p=.821$). 만족도가 높은 대상자가 중간 이하로 낮은 대상자에 비해 비판적 사고성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57, p=.012$).

Table 2. Critical thinking according to satisfaction for nursing (n=155)

	Critical thinking			Time effect F(p)	Time×Group interaction F(p)
	Pre-test	Post 1 st test	Post 2 nd test		
	M±SD				
High	2.9±0.4	2.8±0.3	2.9±0.4	0.20 (.821)	4.57 (.012)
Lower than moderate	2.7±0.2	2.8±0.3	2.7±0.2		
Total	2.8±0.3	2.8±0.3	2.8±0.3		

대상자의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의 변화는 Table 3과 같다. 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던 연령을 공변량으로 한 결과, 시간($F=1.58, p=.210$)과 만족도($F=1.08, p=.343$)에 따라서 임상수행능력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satisfaction for nursing (n=155)

	Clinical practice			Time effect F(p)	Time×Group interaction F(p)
	Pre-test	Post 1 st test	Post 2 nd test		
	M±SD				
High	2.8±0.4	3.0±0.4	3.0±0.3	1.58 (.210)	1.08 (.343)
Lower than moderate	2.7±0.3	3.0±0.4	3.0±0.3		
Total	2.8±0.4	3.0±0.4	3.0±0.3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문제해결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수술환자 간호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3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학만족도에 따라 비판적사고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 만족도는 간호학 학습에 대한 흥미[4], 전문직 관[8], 진로준비행동[10], 비판적 사고성향[4,23] 및 임상수행능력[19,21] 등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학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준비된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은 임상현장에서 기본적인 역량으로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13-15]. 그러므로 간호학 만족도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을 확인해보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군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을 파악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비판적 사고성향이 간호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36으로 중간크기로 나타난 결과[22]와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군에서 시뮬레이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결과[12]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면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반대로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면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시간에 따른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간호대학생이 고학년으로 진학한다고 해서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1년 동안의 정규적인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시간과 그룹 모두 임상수행능력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임상수행능력은 대상자인 간호학생들이 이론, 실습실 실습과 임상실습을 통해 학습한 임상수행능력 역량에 대한 자가 평가임을 고려하더라도, 간호학생들이 인지하는 임상수행능력 역량은 비판적 사고성향보다 간호학 만족도에 영향을 덜 받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이라는 Lim (2019)의 연구결과[27]와는 차이가 있어 그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 만족도를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나누어서 시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변화를 분석한 것에 반해, Lim (2019)의 연구[27]에서는 영향요인 정도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일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도 유의하지는 않지만 간호학 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나 관련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가 1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으로 수행되어 수술환자간호만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는지, 교과과정 상의 다른 교육도 함께 영향을 끼쳤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구조화된 도구가 아닌 3개 문항으로 구성된 간호학 만족도에 따라 분석하였으므로 연구내용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반복연구를 통해 간호학에 대한 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Y대학교 3학년 간호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간호학 만족도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간호학 만족도가 높았던 간호학생들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간에 따라서는 간호학 만족도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술환자에 대한 단계

적 교육은 간호학 만족도에 따라서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가 증명된 구조화된 간호학 만족도에 대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구조화된 간호학 만족도 도구를 사용한 확대연구와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J. Suk, J. M. Jo, Y. I. Young,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f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27-36, 2014.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 [2] D. J. Kim,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3.
- [3] S. O. Shin, "Relation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7, No.6, pp.19-24, 2017.
DOI: <https://dx.doi.org/10.22156/CS4SMB.2017.7.6.019>
- [4] D. J. Kim, SM. Moon, E. J. Kim, Y. J. Kim, SH. Lee,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ccording to academic level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Nurse Education Today*, Vol.34, No.2014, pp.78-82, 2013.
DOI: <https://dx.doi.org/10.1016/j.nedt.2013.03.012>
- [5] C. S. Jeon, H. J. Shin, "Influences of motivation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and Science*, Vol.34, No.5, pp.63-83, 2019.
DOI: <https://dx.doi.org/10.21719/IJTM.34.5.4>
- [6] M. H. Nam, H. O. Kim,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4, No.4, pp.298-306, 2018.
DOI: <https://dx.doi.org/10.1111/ikana.2018.24.4.298>
- [7] D. J. Oh, C. J. Choi, B. E. Gwon, Y. H. Park, "The Effects of Image of Nurses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64-72, 2005.
- [8] K. N. Kim, E. H. Kang,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ppearance satisfaction in major on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3, pp.80-88,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3.80>
- [9]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dge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5, pp.2178-2186,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5.2178>
- [10]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isng Education*, Vol.20, No.1, pp.27-36, 2014.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4.20.1.27>
- [11] S. H. Yoo, H. J. Kim, S. J. Shin, J. H. Choi, Y. S. Hong,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ith their major",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21, No.1, pp.69-82, 2016.
- [12] J. Y. Seo, E. H. Choi, "Effects of simulation practice according to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1, No.3, pp.559-568, 2020.
DOI: <https://dx.doi.org/10.7465/jkdi.2020.31.3.1>
- [13] O. S. Lee, "The effects of simulation-based practice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performanc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4, pp.93-100, 2017.
DOI: <http://doi.org/10.5762/KAIS.2017.18.4.93>
- [14] S. H. Lee, E. J. Lee, "Influence of nurs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y in medium sized hospital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4, No.3, pp.336-346, 2018.
DOI: <https://dx.doi.org/10.22650/JKCN.2018.24.3.336>
- [15] J. J. Yang, "The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5, No.1, pp.443-449, 2019.
DOI: <https://dx.doi.org/10.17703/JCCT.2019.5.1.443>
- [1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Core competency and program outcome [Internet].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cited 2019 January 18],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HyAdmin/view.php?&bbs_id=kab01&page=3&doc_num=657 (accessed April. 29, 2019)
- [17] D. M. Fesler-Birch, "Critical thinking and patient outcomes: a review", *Nursing Outlook*, Vol.53, No.4, pp.59-65, 2005.
- [18] M. K. Jeon, J. W. Oh, "Relationship between rudeness, burnout, major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which nursing students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 pp.339-346,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339>
- [19] C. Barret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preceptor”, Journal Advanced Nursing, Vol.27, No.2, pp.105-108.1998.

- [20] E. K. Lee, J. A. Park.,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7, No.2, pp.293-303, 2013.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3.27.2.293>
- [21] K. H. Lee, “Convergence between Ego-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3, pp. 297-306, 201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3.297>
- [22] Korea Society of Nursing Science. Learning purpose of each subject for nursing students [Internet].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cited 2019 March 28]. Available From:
http://www.kan.or.kr/content/community/post_view.php?bt=13&post_id=3790&page=1 (accessed July. 6, 2020)
- [23] S. H. Kim, M. J. Baek,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3, No.3, pp.409-419, 2019.
DOI: <https://dx.doi.org/10.5932/JKPHN.2019.33.3.409>
- [24] E. K. Lee, J. A. Park, “Ego-resilience and the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7, No.2, pp.293-303, 2013.
DOI: <https://dx.doi.org/10.5932/JKPHN.2013.27.2.293>
- [25] I. S. Kwon, G. E. Lee, G. D. Kim, Y. H. Kim, et al.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cale f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36, No.6, pp.950-958. 2019.
DOI: <http://doi.org/10.4040/jkan.2006.36.6.950>
- [26] J. T. Son, M. H. Park, H. R. Kim, W. S. Lee, K. S. Oh, “Analysis of RN-BSN students’ clinical nursing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7, No.5, pp.655-664 2007.
- [27] J. H. Lim, “A convergence study about the effect path of satisfaction with biological nursing science on clinical competence”, Journal of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10, No.7, pp.421-429, 2019.
DOI: <https://dx.doi.org/10.15207/JKCS.2019.10.7.421>

서 지 영(Ji Yeong Seo)

[정회원]



- 2002년 8월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학

최 은 희(Eun Hee Choi)

[정회원]



- 2002년 2월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 질병예방